

중증 천식 치료의 최신 동향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

조유숙

기관지천식은 흡입성 스테로이드제를 기반으로 한 약물 도입 후, 지난 수십 년 동안 치료 측면에서 큰 진보가 있었다. 그러나, 많은 천식 환자가 만족스럽게 조절되는 가운데, 흡입성 스테로이드제를 포함한 다양한 항천식 약물의 사용에도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중증 천식 환자군이 드러나게 되었다. 중증 천식 환자들은 잦은 급성 악화 증상으로 일상 생활이 힘들뿐 아니라 전신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여 그 증상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 발생의 위험이 매우 크다. 결국 중증 천식은 새로운 약물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이러한 중증 천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새로운 생물학적 제제(biologics)가 개발되어 천식 약물 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생물학적 제제는 천식 발생의 병인기전에서 중요한 물질들을 표적으로 하여 각 과정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즉, 알레르기 면역반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면역글로블린 E를 억제하는 omalizumab, 호산구성 염증을 유발하는 핵심 사이토카인인 IL-5를 억제하는 mepolizumab, reslizumab, benralizumab 등의 약물이 현재 중증 천식 치료에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이다. 또한 IL-4, IL-13, TSLP 등의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biologics 들도 약물 개발 최종 단계에 진입해 있어 가까운 미래에는 처방이 가능한 새로운 약제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새로운 약제들은 고가의 약물이기도 하고, 작용 기전을 고려하여 치료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들에게 선택적으로 투여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알레르겐 특이 IgE가 존재하는 중증 알레르기성 천식 환자에게 omalizumab이 적용되어야 하고, 호산구성 중증 천식 환자에게 항 IL-5 제제가 투여되어야 한다. 현재 천식 진단과 치료의 국제적 지침은 전체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구분 없이 증상조절의 정도를 기준으로 흡입성 스테로이드제와 기관지확장제 중심의 치료약제의 사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증 천식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지침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 천식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고 새로운 약제가 시장 진입을 하고 있는 현 시점은 중증 천식 환자들의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시기이며, 한편으로 새로운 천식 치료 지침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 할 수도 있다.

현재 몇몇 연구들에서 간접적으로 다양한 생물학적 제제들 간의 비교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각 약물들의 치료효과를 직접 비교한 연구는 아직 없으며, 치료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천식 환자들을 어떻게 선택해 낼 것이냐를 명확

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우수한 연구 결과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직 여러 생물학적 체제를 언제 시작할 것인지, 어떤 환자들에게는 어떤 약물이 더 효과적일지, 얼마나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인지, 장기적 사용으로 부작용의 위험성은 없을지 등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다. 향후 가까운 미래에는 새로운 약물의 개발과 사용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